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 결정요인 분석

최철환*·배호중**

초 록

2020년 기준 유배우 가구의 절반 가까이(45.4%)는 맞벌이를 하고 있을 만큼 맞벌이가 보편화 되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을 살핀 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맞벌이 부부의 통근(출·퇴근)시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간사용(time-use)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배우자의 영향력이나 관련성도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배우자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통근시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 남편의 출근 및 퇴근시간이 아내의 출·퇴근시간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편은 높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할 경우 출근시간이 길었으나 아내에게서는 소득범주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미취학가구가 있을 경우 남편의 보다는 아내의 출·퇴근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보다는 아내의 경제활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남편의 경우 배우자(=아내)의 소득이 높은 정도의 범주에 속할수록 출근시간이 긴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내의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통근에 소요된 시간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인적자본 활용의 사회적 비효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밖에 임금이나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과 같이 겹으로 드러나는 노동시장 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인 통근시간을 살펴보는 것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맞벌이 부부, 출·퇴근시간, 통근시간, 토빗분석, 생활시간조사

* 제1저자: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교수(tools22@knu.ac.kr)

** 교신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baseball@kwdimail.re.kr)

I. 서론

상당수의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급속히 해체되어 이인소득자 모델이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Casper & Bianchi, 2002). 한국 또한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율은 1995년 36.6%, 2000년 40.2%, 2014년 43.9%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김수정, 2015: 148),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맞벌이 공식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를 살펴보더라도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1년 44.6%, 2015년 44.1%, 2019년 46.0% 등으로 유배우 가구의 상당수는 맞벌이 가구였으며, 2020년에도 유배우 가구(12,332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5,593천 가구)는 45.4%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21).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연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가사노동시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맞벌이 가구의 시간사용이나 가사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에 관한 연구(김진욱, 2005; 허수연, 2008; 이창순, 2014; 배호중, 2015; 안미영, 2016; 장인수·우해봉, 2017; 엄규숙·황석만, 2019; 허수연·김한성, 2019)나 시간활용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박기남, 2009; 유계숙, 2010; 신명숙·옥경희, 2014; 윤기봉·지연경, 2017)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생활영위에 필수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가사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통근시간’ 또한 거의 모든 맞벌이 부부가 필수적으로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직업인에게 있어 통근은 일상생활 중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며,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나 수면부족, 체력소모와 같은 심리적·신체적 측면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통근시간은 상당히 긴 것으로 판단되는데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28분이지만 한국은 58분이며, 평균 통근시간이 OECD 2위인 일본과 터키보다도 18분이나 더 길며(OECD, 2011; 김수한, 2020에서 재인용),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통근에 사용하는 한국인의 비율 또한 1995년 9.6%, 2000년 14.5%, 2010년 15.6%, 2015년 22.5%로 꾸준히 늘어났다(통계청, 2019a).

이같은 통근시간에도 부부 간 상당한 차이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통근시간 격차가 17분으로 매우 큰 편이며,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격차가 28분으로 늘어나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6분으로 더 크게 늘어났다(OECD, 2016; 김소영, 2020에서 재인용). 남성의 통근시간이 여성보다 더 긴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결과이지만(Dargay & Clark, 2012; McQuaid & Chen, 2012; 서미숙, 2016; Turner & Niemeier, 1997; 양준석·이상현, 2014), 자녀가 있을 때 그 격차가 더 커진다는 사실은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을 결정할 때 성별로, 그리고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고려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소영, 2020: 256).

통근시간은 개인의 주거지와 직장의 성격 및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며(Singell & Lillydahl, 1986; Sorenson & Dahl, 2016; Wachs et al., 1993) 부부 간 분업 양상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기도 하다(Sorenson & Dahl, 2016; 서미숙, 2016; 최성수·주익현, 2019에서 재인용). 부부는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의 상당부분을 함께 하면서 동일한 가구 단위로 경제활동을 영위해가므로 경제활동참가 및 맞벌이를 둘러싼 의사결정은 물론 어떠한 일자리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은 단순히 해당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소득)만 고려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과 가족 생애주기, 계층 등과 함께 배우자와의 논의까지도 반영된 종합적 의사결정의 결과일 수 있다.

시간은 가족생활의 기본자원이고 가족은 생활공동체이기에 기혼자의 시간 사용(time-use)에 미치는 배우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정량으로 주어지므로 상호작용의 크기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안서연·조미라,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부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할 전문화 결정의 결과물인 동시에 그와 같은 부부의 공동 결정(joint decision)이 가구의 경제적 여건 등과 직결되는 주거지 결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는 드물다. 맞벌이 부부의 통근을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부부) 단위에서 탐색하는 작업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최성수·주익현, 2019: 3).

맞벌이 부부는 그 어떤 집단보다 통근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해 집안일이나 여가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맞벌이 부부의 통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통근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만큼 경제학, 지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통근 또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통근시간이나 거리에 대한 분석(빈미영·정의석·박형원, 2012; 양준석·이상현, 2014; 하재현·이수기, 2017; 최성수·주익현, 2019; 김소영, 2020)은 물론 통근비용이나 통근시간의 금전적 가치(Van Ommeren, & Fosgerau, 2009; Small, 2012; Swärdh & Algers, 2016; Isacsson, Karlström, & Swärdh, 2013; 김혜인, 2018; 전해란·전명진, 2020)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근수단 및 통근유형(전은하·이성우, 2007; 권기현·전명진, 2014; Hu, & Schneider, 2017; Tao, Fu, & Comber, 2019), 통근패턴(노시학·손종아, 1993; 손승호, 2000; Ma et al., 2017; 류나영·홍인수, 2020; Jain, Korzhenevych, & Hecht, 2018) 등 통근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물론 통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입지 결정이나 직장과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최열·유숙향, 2005; 전은하·민성희·이성우, 2008; 김진유·성현곤·박지형, 2012; 손승호, 2014; 이민주·박인권, 2016; 조윤성·김기중·이창효, 2018) 및 유류가격, 자가 등 통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김승남·김희철·안건혁, 2009; Anas & Hiramatsu, 2012; Nowak & Savage, 2013; Zolnik, 2011; Iseki & Ali, 2014)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밖에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돈(비용)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통근시간과 비용(예컨대 직주비용)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 연구(전명진·안현주, 2016; 권성문·박길환, 2020; 최준성·노승한, 2021)도 존재하며, 통근과 삶의 만족도, 건강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고은주·전승봉, 2017; 김수한, 2020; 전해란·전명진, 2020; Stutzer & Frey, 2008; Roberts, Hilbrecht, Smale, & Mock, 2014; Olsson et al., 2013)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근시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근시간은 경제·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노시학·손종아, 1993; Crane, 2007; 양준석·이상현, 2014; 서미숙, 2016; Dargay & Clark, 2012; McQuaid & Chen, 2012; Turner & Niemeier, 1997; Yang & Lee, 2014; 김소영, 2020에서 재인용)의 통근거리나 시간이 긴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소득(조상규, 2008;

김현우·김호연, 2011; Dargay & Clark, 2012; 추상호·박성경, 2013; 이민주·박인권, 2016; 하재현·이수기, 2017)이나 주택점유형태(전명진·강춘령, 2009; 추상호·박성경, 2013; 하재현·이수기, 2017; 서미숙, 2016; 이민주·박인권, 2016), 직업(윤인하·김호연, 2003; 추상호·박성경, 2013; 이민주·박인권, 2016) 등에 따라서도 통근시간 양상에 차이가 있음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통근(시간)의 지역별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외의 경우 통근에 많은 시간이 사용되고 교통혼잡비용 또한 상당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성낙문 외, 2012; 조한선·이동민·김영춘, 2013; 통계청, 2017). 이를 반영하듯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상당한 편이다(전명진, 1996; 손승호, 2000; 윤인하·김호연, 2003; 전은하·이성우, 2007; 조상규, 2008; 김진유·성현곤·박지형, 2012; 추상호·박성경, 2013; 손승호, 2014; 전명진·안현주, 2016; 하재현·이수기, 2017).

자녀 또한 통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 자녀수가 많거나 어릴수록 통근시간이나 거리가 짧은 것(Lee & McDonald, 2003; 전명진·강춘령, 2009; McQuaid & Chen, 2012; 양준석·이상현, 2014; 김소영, 2020)이 확인되었는데 그 영향은 남편보다는 아내에게서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Gimenez-Nadal & Molina, 2016; McQuaid & Chen, 2012; 서미숙, 2016; Wheatley, 2013; 김소영, 2020에서 재인용).

한편, 맞벌이 가구의 통근에 초점을 둔 연구도 존재하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남편보다는 아내의 통근시간이나 거리가 짧음을 이야기하고 있다(전명진, 1996; 지우석·오은정, 2004; Wheatley, 2013; 전명진·강춘령, 2009; 양준석·이상현, 2014; 김소영, 2020). 실증분석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를 설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는데 White(1977)는 미국 근로자의 통근 양상이 미혼여성과 남성은 큰 차이가 없지만 기혼여성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수리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및 미혼 여성은 거주지와 거리가 먼 도시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음을 인구센서스자료를 통해 관찰하였고 이에 대해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 간 통근을 둘러싼(주거지 입지) 의사결정의 차이의 가능성을 가구의 예산제약 및 시간제약식을 통해 풀이하기도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019년 「생활시간조사」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의 통근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의 시간 활용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하고자 1999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주기로 총 5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응답자)이 한 행동을 2일(48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직접 기입한 자료이며,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7월, 9월, 12월에 진행되었으며, 12,435표본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통계청, 2019b).

본 연구에서는 가구특성과 관련한 변수 중 ‘가구주의 배우자가 가구원에 존재하면서 맞벌이’인 가구(=부부가 동거 중인 맞벌이 가구)의 시간일지를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구번호 및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이용해 부부(=남편과 아내)의 시간일지를 하나로 결합한 후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간일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평일(월~금)뿐만 아니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일요일의 경우 근로(통근)가 이루어진 사례 수가 많지 않으며, 일요일 근로의 경우 비정상적·비반복적 근로일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포함할 경우 분석이나 해석의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월~토요일의 시간일지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종사상 지위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배우자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근로시간이나 급여(소득 수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들 또한 해당 변수 등을 이용한 분석에는 왜곡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통근’에 대해 살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일지 중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시간이 10분 이상인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총 2,067쌍의 부부 자료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두 번 이상의 조사에서 조사된 부부도 존재하여 최종적으로는 3,019개의 남편 시간일지와 같은 수의 아내 시간일지를 결합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구성

1) 종속변수: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 각각의 출근시간과 통근시간(총 4가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주행동 기준의 행동분류 코드 중 ‘출근(JUTIME921)’, ‘퇴근(JUTIME922)’에 사용한 시간(분)을 집계하였는데 출근 또는 퇴근에 사용된 시간 또한 여느 행동과 마찬가지로 10분 단위로 측정되었다.

2) 독립변수: 배우자 특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는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의 상당부분을 함께 하면서 의사결정 또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의 특성이 본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도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결정이나 맞벌이의 지속여부 등에 대한 결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자리를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출근과 퇴근 또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의사결정의 결과가 발현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시간을 계획하고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한국의 경우 맞벌이 여성(아내)이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은 통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이에 배우자의 다양한 특성 중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범주와 시간부족감 그리고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배우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삼아 모형에 포함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의 소득은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된 방식과 같이 100만원 단위로 구분한 가변수(dummy variable)를 생성하여 활용하였고, 시간부족감은 「생활시간조사」의 ‘귀하는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①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④항상 부족하다고 느낌”의 4점척도로 역코딩하여 환산한 값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출근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배우자의 출근시간을, 퇴근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배우자의 퇴근시간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3) 통제변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근(출근 및 퇴근)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크게 개인특성, 일자리특성 그리고 가구특성으로 나누어 통제변수들을 설정하였다.

개인특성으로 활용한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에 따라서 감내할 수 있는 통근거리나 시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소득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평일과 토요일을 비교해보면 사람들의 생활패턴 및 교통체증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 통근양상 또한 달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평일과 토요일로 조사가 이루어진 일을 구분하였다.

통근은 일자리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 자명한데 일자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근로시간, 직업, 산업을 고려하였다.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통근이므로 단시간의 근로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근에 들이는 경우는 드물 것이며, 취업의 가능성이나 감내할 수 있는 통근시간의 양상이 업종·직업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였다.

이어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미취학가구원 유무, 자가보유 여부를 고려하였다. 지역의 경우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일자리가 소재한 지역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가구의 위치만으로도 가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가구가 위치한 지역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등의 특징을 고려해 거주지역을 네 가지(서울, 인천·경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그 외의 지역)로 구분하여 통제하였다.

이 밖에 자녀양육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가구책임가설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미취학자녀’가 가구 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였고, 주택의 마련 또한 통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주거입지와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반영하여 자가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였다.

3. 분석방법: 토빗회귀분석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퇴근시간에 대한 분석은 토빗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일터와 매우 가까운 곳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예컨대 거주지와 동일한 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등) 10분 단위로 집계되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출·퇴근시간이 '0분'으로 집계될 수 있다. 실제로 후술할 출·퇴근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근로자(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여부에 대해 '일을 하였음'이라고 집계되었으며, 근로에 10분 이상을 할애했다고 응답한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함) 중 10% 이상은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이 0분으로 집계되었다.

이 경우 자료값의 분포가 좌측 중도절단(left-censoring)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절단된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 model)이다(허수연·김한성, 2019). 토빗회귀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 x_i + \epsilon_i, \quad \epsilon_i \sim (0, \sigma^2)$$

위 식에서 종속변수 y_i^* 는 관측불가능한 잠재변수를 의미하며 관측가능한 종속변수(=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y_i &= y_i^* & (y_i^* > 0 \text{인 경우}) \\ y_i &= 0 & (y_i^* \leq 0 \text{인 경우}) \end{aligned}$$

IV.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분석

1. 기초통계분석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맞벌이 부부 2,067쌍의 시간일지 3,019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편은 평균 약 35.6분을, 아내는 30.1분가량을 출근에 사용하고 있었

다. 퇴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남편은 35.9분, 아내는 29.8분을 퇴근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남편의 평균 출근 및 퇴근시간이 아내에 비해 각각 5분 정도 더 길었다.

연령은 남편이 평균 48.9세, 아내는 46.3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남편과 아내 모두 고졸이 1/3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아내의 경우 초졸 이하와 중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교육수준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점척도의 시간부족감은 남편이 평균 2.96점, 아내는 평균 3.07점으로 아내의 평균이 약간 더 높았다. 소득범주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비중이 각각 30.9%와 24.8%로 가장 많았으며, 아내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42.8%), 100만원 미만(16.3%) 등 저임금에 속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았다. 분석에 이용한 3,109부의 시간일지 중 89.4%에 해당하는 2,780부의 시간일지는 평일(월~금)에 조사된 것이었으며, 10.6%(329부)는 토요일에 조사가 진행된 시간일지였다.

일자리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근로시간은 평균 444.7분(약 7.41시간)이었고, 아내는 381.4분(약 6.36시간)으로 1시간 정도 차이가 있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성별 직업차이를 반영하듯 남편의 경우 관리자(6.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6.2%)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아내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6.7%), 서비스 종사자(19.2%), 판매 종사자(12.6%) 등의 직업을 가진 이가 많았다.

산업 또한 남편과 아내 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남편은 제조업(22.9%), 전기·수도·건설업(12.1%), 운수 및 창고업(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확인되었고, 아내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9.6%), 교육 서비스업(15.5%),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8.5%) 등에 종사 중인 이들의 비중이 남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 소재지를 살펴보면 서울이 10.4%, 인천 및 경기도가 22.6%였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 거주 중인 이들의 비중은 24.0%로 집계되었다.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7.7%였고, 10가구 중 7가구(70.7%)는 자가로 보유하고 있었다.

시간부족감과 소득범주 그리고 출·퇴근시간을 통해 배우자의 특성을 짚어 보면 부부의 자료를 한데 묶어서 분석한만큼 남편과 아내의 수치가 개인특성에서 살펴본 수치와 정확히 반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남편		아내		
				평균 or 빈도	표준편차 or %	평균 or 빈도	표준편차 or %	
종속 변수	출근시간(분)		출근에 소요된 시간(분)	35.58	24.32	30.09	20.81	
	퇴근시간(분)		퇴근에 소요된 시간(분)	35.94	26.33	29.79	21.93	
개인 특성	연령		연령(세)	48.90	9.99	46.27	9.49	
	교육 수 준	초졸 이하	초졸 이하=1, 그 외=0	104	3.4%	130	4.2%	
		중졸	중졸=1, 그 외=0	193	6.2%	224	7.2%	
		고졸	고졸=1, 그 외=0	1,077	34.6%	1,190	38.3%	
		전문대졸	전문대졸=1, 그 외=0	635	20.4%	657	21.1%	
		대졸 이상	대졸 이상=1, 그 외=0	1,100	35.4%	908	29.2%	
	시간부족감(4점척도)		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함	2.96	0.85	3.07	0.81	
	소득 범 주	1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1, 그 외=0	95	3.1%	507	16.3%	
		100~200만원	100~200만원 미만=1	399	12.8%	1,330	42.8%	
		200~300만원	200~300만원 미만=1	961	30.9%	778	25.0%	
		300~400만원	300~400만원 미만=1	771	24.8%	233	7.5%	
		400~500만원	400~500만원 미만=1	427	13.7%	147	4.7%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1	456	14.7%	114	3.7%	
	요일	평일(월~금)		월~금=1, 그 외=0	2,780	89.4%	왼쪽과 동일	
		토요일		토요일=1, 그 외=0	329	10.6%		
일 자 리 특 성	근로시간(분)		근로시간(분)	444.67	141.22	381.36	136.40	
	직 업	관리자	관리자=1, 그 외=0	205	6.6%	54	1.7%	
		전문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	501	16.1%	830	26.7%	
		사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1	643	20.7%	599	19.3%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1	177	5.7%	598	19.2%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1	228	7.3%	393	12.6%	
		농림어업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1	126	4.1%	47	1.5%	
		기능원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1	410	13.2%	70	2.3%	
		장치, 기계조작	장치, 기계조작·조립=1	505	16.2%	118	3.8%	
		단순노무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1	314	10.1%	400	12.9%	
	산 업	농림어업 및 광업	표준산업 분류 (10차 개정) 기준	A+B	133	4.3%	62	2.0%
		제조업		C	713	22.9%	421	13.5%
		전기·수도·건설업		D+E+F	376	12.1%	62	2.0%
		도매 및 소매업		G	347	11.2%	408	13.1%
		운수 및 창고업		H	293	9.4%	33	1.1%
숙박 및 음식점업		I		105	3.4%	299	9.6%	
정보통신·금융 등		J~N		491	15.8%	448	14.4%	
공공행정, 국방		O		239	7.7%	94	3.0%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남편		아내	
				평균 or 빈도	표준편차 or %	평균 or 빈도	표준편차 or %
		교육 서비스업	P	150	4.8%	481	15.5%
		보건·복지서비스	Q	74	2.4%	576	18.5%
		기타 서비스업 등	R+S+T+U	188	6.1%	225	7.2%
가구특성	지역	①서울	서울=1, 그 외=0	322	10.4%	왼쪽과 동일	
		②인천+경기	인천·경기=1, 그 외=0	703	22.6%		
		③광역시(인천 외)	광역시(인천 제외)=1	745	24.0%		
		④그 외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1	1,339	43.1%		
	미취학가구원 유무		있음=1, 없음=0	550	17.7%	왼쪽과 동일	
배우자특성	자가보유 여부		자가=1, 그 외=0	2,197	70.7%	왼쪽과 동일	
	시간부족감(4점척도)		①항상 여유~④항상 부족함	3.07	0.81	2.96	0.85
	소득범주	①1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1, 그 외=0	507	16.3%	95	3.1%
		②100~200만원	100~200만원 미만=1	1,330	42.8%	399	12.8%
		③200~300만원	200~300만원 미만=1	778	25.0%	961	30.9%
		④300~400만원	300~400만원 미만=1	233	7.5%	771	24.8%
		⑤400~500만원	400~500만원 미만=1	147	4.7%	427	13.7%
		⑥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1, 그 외=0	114	3.7%	456	14.7%
	배우자의 출근시간(분)		출근에 소요된 시간(분)	30.09	20.81	35.58	24.32
	배우자의 퇴근시간(분)		퇴근에 소요된 시간(분)	29.79	21.93	35.94	26.33
	N			시간일지 3,109쌍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퇴근시간에 대해 10분 단위로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남편의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직주일치 등으로 통근시간이 0분으로 집계된 비율은 7.2%였으며, 출근에 소요된 시간이 10분, 20분인 비율은 각각 9.2%와 19.4%였다. 23.2%는 통근에 3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통근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가 59.0%를 차지하였다. 맞벌이 부부 남편 10명 중 3명 정도(30.6%)는 통근에 40~6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8.2%는 70분~90분을 출근에 할애하고 있었다. 2.2%는 출근에 9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정도의 통근시간에 많은 이들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통근시간이 0분으로 집계된 비율은 7.9%였고, 59.9%는 10~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어 통근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가 67.8%를 차지하였다. 40~60분 정도 소요된 이들의 비중은 26.7%였으며, 4.4%는 출근에 70~90분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어서 퇴근시간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퇴근시간이 '0분'인 이들의 비율이 출근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9.1%와 11.1%), 10~30분 사이에 있는 이들의 비율은 남편은 52.7%, 아내는 57.0%였다. 퇴근시간이 40~60분 사이에 있는 비중은 각각 24.8%와 20.3%였으며, 70분 이상 퇴근에 소요한 이들의 비중은 남편은 8.3%, 아내는 4.7%였다¹⁾.

〈표 2〉 남편과 아내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분포

	출근시간				퇴근시간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분	224	7.2	247	7.9	283	9.1	344	11.1
10분	285	9.2	429	13.8	327	10.5	417	13.4
20분	603	19.4	743	23.9	547	17.6	655	21.1
30분	722	23.2	691	22.2	648	20.8	722	23.2
40분	422	13.6	410	13.2	385	12.4	362	11.6
50분	249	8.0	216	7.0	245	7.9	201	6.5
60분	281	9.0	203	6.5	333	10.7	226	7.3
70분	112	3.6	77	2.5	115	3.7	74	2.4
80분	81	2.6	38	1.2	64	2.1	39	1.3
90분	61	2.0	23	0.7	62	2.0	25	0.8
90분 ↑	69	2.2	32	1.0	100	3.2	44	1.4
전체	3,109 (100.0)							

주: ()는 %

2.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의 출근시간 분석

1) 맞벌이 가구 남편의 출근시간 분석

맞벌이 부부의 출근 및 퇴근시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우선 출근시간을 종속변수로 삼아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개인(본인) 특성 및 일자리특성만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 [모형 I]과 개인특성 및 일자리특성, 그리고 배우자의 특성 중 배우자의 소득범주를 포함한 [모형 II], 개인특성과 일자리특성은 물론 배우자의 소득범주와 배우자의 출근시간까지 포함

1) 맞벌이 부부의 통근양상에 대한 참고를 위해 간략히 부가적인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중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출·퇴근시간과 관련해서 분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부록 1]에, 출·퇴근 출발 시각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한 [모형 III]의 세 가지로 구성하여 각각의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표 3>에는 남편의 출근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표 4>에는 같은 방식으로 아내의 출근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 III]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²⁾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출근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출근에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연령이 높을 경우 체력 등의 이유로 근거리에서 일자리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무기간이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를 가져 교통체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시각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출근에 소요된 시간이 적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연령이 높은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자산을 축적해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마련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³⁾.

교육수준 범주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득의 경우 모든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출근시간이 여느 집단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평일 출근에 비해 토요일은 4.6분 정도 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결과값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출근에 소요된 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단시간 근로를 위해 긴 통근을 감내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며, 출근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일을 마치고 오고자 하는 욕구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기준변수로 삼은 사무 종사자에 비해 관리자의 경우 출근에 소요된 시간이 6.9분 정도 짧았으며,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의 경우에도 각각 7.0분과 3.9분 정도 짧았다. 농림어업숙련 종사자⁴⁾의 경우 출근에 소요된 시간이 사무 종사자에 비해

2) 다중회귀분석에서 계수값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값의 변화량인 한계효과를 뜻하지만, 토빗회귀분석에서의 계수값은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평균값에 미치는 변화량과 그 값이 관찰될 확률이라는 두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값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한계효과는 변화량과 관찰될 확률의 곱으로 결정되므로(Greene, 2003; 박성익·조장식, 2016에서 재인용) 한계효과(dy/dx)의 값도 함께 제시하였다.

3) 이와 같은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개인 및 일자리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사되지 않아 명확한 해석에는 제약이 있다.

약 16분 짧았으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3.3분가량 짧음을 알 수 있다.

재직 중인 일자리의 산업에 따라서는 본 연구에서 기준변수로 삼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전기·수도·건설업 종사자의 출근시간은 평균 8분정도 길었으며,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6.3분가량 짧았다. 이와 함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공행정, 국방에 종사 중인 이들의 출근시간은 7.0분 짧았으며, 기타 서비스업 등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출근에 소요된 시간이 7.8분 정도 짧았다.

지역에 따른 통근시간의 차이도 상당했는데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을 반영하듯 서울지역 근로자의 출근시간은 기준변수로 삼은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지역 근로자들에 비해 12.4분가량 길었고, 인천·경기 지역 근로자들의 출근시간 또한 11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취학가구원이 있을 경우 평균 출근시간이 2.6분 정도 짧은 것으로 [모형 III]을 통해 분석되었다. 자가보유 변수의 경우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은 아니었다.

배우자(아내)의 소득 및 출근시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소득이 높은 정도의 범주에 속할수록 남편의 출근시간이 전반적으로 더 길었다. 다만 아내의 소득이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계수값의 크기도 작아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었다. 이와 함께 아내의 출근시간 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아내의 출근시간이 길수록 남편 또한 출근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출근시간이 1분 길수록 남편의 출근시간도 0.16분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여기에서는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량'에 초점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져 출(퇴)근 시간의 길이가 차이 나는 이유까지는 분석결과를 통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컨대 출근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농림어업숙련 종사자의 경우 농·어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논/밭/바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출근에 적은 시간이 소요된 것인지 교통체증이 덜한 지역 또는 시간대에 출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근에 필요한 시간이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만 단정짓기가 어렵다. 이는 뒤에도 이어질 시간차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illegible]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B	S.E.	dy/dx	S.E.	B	S.E.	dy/dx	S.E.	B	S.E.	dy/dx	S.E.	
미취학가득원 유무		-3.51**	1.30	-3.19	0.247	-3.33*	1.31	-3.03	0.24	-2.62	1.30	-2.38	0.19	
		1.73†	1.01	1.58	0.122	1.40	1.01	1.28	0.10	1.23	1.00	1.12	0.09	
배우자특성		<div></div>												
														시간부족감
														100만원 미만
														200~300만원(=ref.)
														100~200만원
														300~400만원
소속 범주		3.97***	1.11	3.62	0.28	3.71**	1.10	3.38	0.27					
		3.55*	1.77	3.23	0.25	2.88†	1.75	2.620	0.21					
400~500만원		8.46***	2.15	7.70	0.61	6.94**	2.14	6.32	0.51					
		500만원 이상	-0.13	2.47	-0.12	0.01	0.09	2.45	0.08	0.01				
배우자의 출근시간(분)		<div></div>												
		23.68***	0.32	-	-	23.58***	0.32	-	-	23.37***	0.31	-	-	
Sigma(σ)		-13,476				-13,464				-13,436				
Log Likelihood		27,029				27,015				26,962				
AIC		27,259				27,281				27,234				
Schwarz Criterion														
N		3,109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2) 맞벌이 가구 아내의 출근시간 분석

〈표 4〉에는 아내의 출근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아내)의 특성 및 배우자(남편)의 소득범주와 배우자의 출근시간까지 포함한 [모형 III]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내의 경우 남편과 달리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교육수준과 시간부족감 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소득범주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100~200만원 범주에 속한 이들에 비해 1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 출근시간이 2.6분가량 짧았으며, 400~5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 6.8분 정도 길었다. 이와 함께 아내의 출근시간 또한 조사일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평일에 비해 토요일 출근이 약 6분 짧았다.

일자리특성과 관련해서는 아내 또한 근로시간이 길수록 출근에 소요된 시간이 길었다. 직업은 기준변수로 삼은 사무 종사자에 비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출근시간은 각각 4~5분 정도 짧았으며 농림어업숙련 종사자의 경우 20.4분 정도 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일자리의 산업별로는 기준변수로 삼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는 7분가량,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4.6분 정도 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서울은 10.8분 길었고, 인천·경기지역 근로자들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출근시간 또한 각각 8.3분과 5.1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미취학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3.2분 정도 출근시간이 짧았는데 이는 자녀돌봄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의 일자리를 가지기 때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배우자(남편)의 소득 및 출근시간과 관련해서는 비록 완전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통근에 소요된 시간은 짧은 것으로 [모형 III]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는 남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남편이 가계 내 주된 소득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는 보조소득원인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아내까지 원거리의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남편의 출근시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남편의 출근시간이 길수록 아내 또한 출근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B	S.E.	dy/dx	S.E.	B	S.E.	dy/dx	S.E.	B	S.E.	dy/dx	S.E.								
미취학가구원 유무		-3.42**	1.16	-3.09	0.23	-3.55**	1.16	-3.21	0.240	-3.22**	1.15	-2.91	0.22								
		0.87	0.88	0.79	0.06	1.27	0.88	1.15	0.09	1.16	0.87	1.05	0.08								
배우자 특성		시간부족감																			
		100만원 미만																			
		200~300만원(=ref.)																			
		100~200만원												-3.54**	1.29	-3.21	0.24	-4.01**	1.28	-3.63	0.28
		300~400만원												-4.41**	1.38	-3.99	0.30	-5.13***	1.37	-4.65	0.38
		400~500만원												-5.34***	1.55	-4.84	0.36	-5.59***	1.53	-5.06	0.39
배우자의 출근시간(분)		500만원 이상	-4.81**	1.58	-4.36	0.32	-5.02**	1.56	-4.54	0.35											
Sigma(σ)		20.76***	0.280	-	-	20.70***	0.280	-	-	20.49***	0.28	-	-								
Log Likelihood		-13.019				-13.011				-12.981											
AIC		26,114				26,110				26,052											
Schwarz Criterion		26,343				26,376				26,324											
N		3,109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4. 맞벌이 가구 남편과 아내의 퇴근시간 분석

1) 맞벌이 가구 남편의 퇴근시간 분석

〈표 5〉에는 맞벌이 가구 남편의 퇴근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출근과 동일한 길을 오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반적으로는 계수값의 크기나 유의도 등이 출근시간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도 배우자(아내)의 소득수준 및 출근시간까지 고려한 [모형 III]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특성과 관련해서는 연령, 조사일을 구분하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일에 비해서는 토요일의 퇴근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특성과 관련해서는 출근과는 달리 근로시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내지 않았고, 직업별로는 (기준변수로 삼은 사무 종사자에 비해)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전기·수도·건설업 종사자의 퇴근시간은 상대적으로 긴 반면, 운수 및 창고업, 공공행정, 국방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자의 퇴근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출근시간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퇴근시간은 기준변수로 삼은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 지역 거주자들의 퇴근시간에 비해 10분 이상 길었으며, 광역시(인천제외) 거주자의 퇴근시간 또한 그들에 비해 3.5분 더 오래 걸렸다.

배우자(아내)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계수값의 부호로 보아 아내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남편의 퇴근시간도 짧고, 아내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에 속할 경우 남편의 퇴근에 소요된 시간이 길 가능성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아내의 퇴근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퇴근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아내의 퇴근시간이 1분 더 길수록 남편의 퇴근시간 또한 0.15분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B	S.E.	dy/dx	S.E.	B	S.E.	dy/dx	S.E.	B	S.E.	dy/dx	S.E.
	미취학가구원 유무	-2.60†	1.45	-2.31	0.20	-2.42†	1.46	-2.15	0.18	-1.67	1.46	-1.48	0.13
	자기보유 여부	3.06**	1.13	2.72	0.23	2.81	1.13	2.50	0.21	2.68*	1.12	2.39	0.21
배우자특성	시간부족감					-0.32	0.63	-0.29	0.02	-0.53	0.62	-0.47	0.04
	100만원 미만					-2.15	1.43	-1.91	0.16	-1.16	1.42	-1.03	0.09
	200~300만원(=ref.)					-	-	-	-	-	-	-	-
	100~200만원					1.62	1.25	1.44	0.12	1.21	1.24	1.08	0.09
	300~400만원					1.84	1.98	1.64	0.14	1.22	1.97	1.09	0.10
	400~500만원					6.78**	2.41	6.02	0.51	5.68*	2.40	5.05	0.44
	배우자의 퇴근시간(분)					0.39	2.78	0.34	0.03	0.35	2.75	0.31	0.03
										0.15***	0.02	0.14	0.01
Sigma(σ)		26.43***	0.36	-	-	26.37***	0.36	-	-	26.18***	0.36	-	-
Log Likelihood						-13,575				-13,553			
AIC						27,240				27,195			
Schwarz Criterion						27,470				27,467			
N										3,109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2) 맞벌이 가구 아내의 퇴근시간 분석

맞벌이 가구 아내의 퇴근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여기서도 배우자(남편)의 소득수준 및 출근시간까지 고려한 [모형 III]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보면 100만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저소득 일자리를 가진 이들의 퇴근시간은 짧았고, 평일에 비해서는 토요일에 조사된 이들의 퇴근시간이 5분가량 짧았다.

일자리특성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길수록 퇴근에 소요된 시간도 길었으며, 직업별로는 기준변수로 삼은 사무 종사자에 비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7.0분), 서비스 종사자(-4.8분), 농림어업숙련 종사자(-21.4분)의 퇴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준변수로 삼은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운수 및 창고업 종사자의 퇴근시간이 11.9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퇴근시간 및 광역시 거주자들의 퇴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미취학가구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퇴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남편)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퇴근시간이 길수록 아내의 퇴근시간 또한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Tobit model			Marginal effects																	
	B	S.E.		dy/dx	S.E.		B	S.E.		dy/dx	S.E.		B	S.E.		dy/dx	S.E.																
미취학가구원 유무	-2.81*	1.25		-2.47	0.24		-2.93*	1.26		-2.58	0.25		-2.69*	1.25		-2.37	0.24																
	0.44	0.95		0.39	0.04		0.62	0.96		0.54	0.05		0.36	0.95		0.32	0.03																
배우자특성	시간부족감																																
																		소득범주	100만원 미만														
																			200~300만원(=ref.)														
																			100~2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배우자의 퇴근시간(분)																																	
Sigma(σ)		22.34***	0.31	-	-	-	22.37***	0.31	-	-	-	-	22.16***	0.31	-	-	-																
Log Likelihood		-12,879				-12,877				-12,856																							
AIC		25,834				25,842				25,802																							
Schwarz Criterion		26,063				26,107				26,074																							
N		3,109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맞벌이 가구의 통근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통근시간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시간사용의 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영향력이나 관련성도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통근시간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배우자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 남편의 출근 및 퇴근시간이 아내에 비해 약간 길게 나타난 가운데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시간이 길수록, 평일에 비해 토요일의 출·퇴근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남성)과 아내(여성)의 직업 및 산업 분포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가운데 남편과 아내 모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의 출근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산업에 따라서는 공공행정, 국방에 종사 중인 이들이 출근에 소비한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 통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배우자의 통근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통근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차이점도 확인되었는데 배우자 또는 가구특성과 관련한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취학가구가 있을 경우 남편과 아내의 출·퇴근시간 모두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남편의 경우 출근시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수값의 크기나 유의도 등을 종합해볼 때 미취학가구의 존재는 남편보다는 아내의 직업활동을 가정과 인접 거리에서 하도록 이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 밖에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남편의 경우 배우자(아내)의 소득이 높은 정도의 범주에 속할수록 출근시간이 긴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내의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통근에 소요된 시간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근을 둘러싼 기존의 분석과 비교해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 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을 살펴봄에 있어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는 통근시간이 노동시장 참여여부나 의중임금 등과 관련이 있다는 논의들을 전제로 하면 성별 간 통근시간의 차이가 결국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론을 할 수 있는데(양준석·이상현, 2014)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과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일자리는 포기하거나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취학가구원이 있을 경우 남편보다는 아내의 통근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동시에 고려해보면 자녀양육에 따른 제약 또한 아내(여성)에게 더 큰 제약조건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본 연구에서 명시적인 변수를 이용해 분석을 한 결과는 아니지만 가사노동 등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에 따른 가사노동 분담(주로 아내가 담당)을 위해 아내는 상대적으로 통근이 용이한 정도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노동시장에서의 한정적 기회만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주목한 배우자와의 관련성을 보면 남편의 경우 아내의 소득이 높을수록 통근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내의 경우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통근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를 아내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소득수준에 집중되어 있음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여전히 많은 가구에서 여성이 이차부양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상당함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 동질혼의 경향이 비교적 뚜렷함을 염두에 둔다면 고소득 남편을 둔 고숙련·고학력 등 그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아내 중 일부는 본인의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보다는 집 주변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물론 일자리의 진·출입 또는 어떠한 일자리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아동(자녀)돌봄을 둘러싼 국가의 적절한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상당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를 지탱해나갈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금이나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노동시장 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인 통근시간을 살펴보는 것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혼인상태별) 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근시간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만일 적절한 도시·교통 정책을 통해 통근시간을 단축시킬 수만 있다면 단축된 통근시간은 통근에 대한 부담감 경감 그 자체에 그칠뿐만 아니라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인적자본활용을 극대화하는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맞벌이 가구의 통근시간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시간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배우자 간 상호의존성의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통근을 둘러싼 분석에서도 배우자의 관련성도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우선 통근수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할지라도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통근수단에 따라 이동거리나 피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근에 있어 통근수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아내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통근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거리나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시각 또한 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통근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자료의 제약이나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현재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통근거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혼인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등 통근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상당히 빈번함을 염두에 둔다면 맞벌이 기혼여성의 현재의 일자리만을 가지고 분석한 본 연구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패널자료 등을 이용해 현재의 통근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변화양상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성별·혼인상태별 통근차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이들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보다 풍부한 해석이나 함의까지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부부간 역할 분담인식이나 일자리 및 가정생활을 둘러싼 가치관 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다면 한층 더 체감도 높은 분석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와 같은 한계점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통계자료가 마련되고 그것을 이용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들이 쌓여간다면 우리사회의 (여성) 인적자본 활용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고은주·전승봉(2017). “경기도민의 통근시간과 삶의 질: 생활시간 및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제19권 제3호. 25-49.
- 권기현·전명진(2014). “생활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및 이동수단 차이 분석”. 지역연구. 제30권 제3호. 109-129.
- 권성문·박길환(2020). “직주균형이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공간계량경제학적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2호. 137-161.
- 김소영(2020).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관련 요인: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58권 제2호. 255-266.
- 김수정(2015). “누가 맞벌이화를 주도하는가? 맞벌이 이행에서 시기, 연령, 코호트 효과 분석”. 한국여성학. 제31권 제4호. 147-180.
- 김수한(2020). “통근시간이 직장여성의 결혼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제107권 제4호. 83-108.
- 김승남·김희철·안건혁(2009). “유류가격이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 가격탄력성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4권 제7호. 153-169.
- 김진욱(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51-72.
- 김진유·성현곤·박지형(2012). “주거지불능력 및 주거환경이 통근자족성에 미치는 영향: 2010 년 서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7권 제5호. 113-125.
- 김현우·김호연(2011).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울 거주자의 통근통행패턴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437-451.
- 김혜민(2018).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근비용 형평성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시학·손종아(1993). “성에 따른 직주분리와 통근통행 패턴의 차이”. 대한지리학회지. 제28권 제2호. 27-246.
- 류나영·홍인수(2020). “도시 스포츠가 통근 패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광역도시권을 사례로”. 한국지도학회지. 제20권 제3호. 73-92.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갈등 연구-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제2호. 37-71.
-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

- 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151-181.
- 빈미영·정의석·박형원(2012). “생애주기별 통근통행시간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지. 제30권 제3호. 71-82.
- 서미숙(2016). “성별에 따른 통근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제18권. 5-36.
- 성낙문·박준석·조한선·이동민·김도훈·김영춘(2012). 도시부 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정책방안 개발.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 손승호(2000). “서울시의 출근통행패턴과 지역연결체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3권 제2호. 21-37.
- _____(2014). “수도권의 직주균형과 통근통행의 변화: 2005-2010년”. 대한지리학회지. 제49권 제3호. 390-404.
- 신명숙·옥경희(2014). “기혼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가사분담과 부부공유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19권 제1호. 5-25.
- 안미영(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112권. 13-40.
- 안서연·조미라(2018). “한국사회 노동시간의 변화와 불평등 연구: 개인과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41권 제3호. 65-98.
- 양준석·이상현(2014). “왜 여성의 통근시간은 짧은가? 성별 통근시간 차이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161-184.
- 엄규숙·황석만(2019). “맞벌이 가구 가사 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제43권 제2호. 75-102.
-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제1호. 41-69.
- 윤기봉·지연경(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인간발달연구. 제24권 제3호. 133-153.
- 윤인하·김호연(2003). “수도권의 통근통행 패턴에 관한 연구, 1990-1996”. 국토계획. 제38권 제6호. 87-97.
- 이민주·박인권(2016). “지역 특성에 따른 소득별 직주불일치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32권 제1호. 67-82.
- 이창순(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3호. 29-54.
- 장인수·우해봉(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 여성연구. 제95권 제4호. 41-72.
- 전명진(1996). “맞벌이 가계의 주거 및 직장선택과 통근행태에서의 성별차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1권 제4호. 111-123.
- 전명진·강춘령(2009).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통근통행 행태 분석”. 국토계획. 제44권 제3호. 193-206.
- 전명진·안현주(2016). “수도권 통근자의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의 상쇄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8권 제2호. 25-40.
- 전은하·이성우(2007). “수도권 교차통근자의 통행수단 선택 분석: 1995-2000”.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4호. 107-125.
- 전은하·민성희·이성우(2008). “통근시간이 맞벌이가구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 1990-2000”.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231-258.
- 전혜란·전명진(2020). “통근시간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및 통근시간 가치 분석-서울시 가구 유형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3호. 87-100.
- 조상규(2008). 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 및 고용 입지와 통근 행태의 관계 변화: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윤성·김기중·이창효(2018). “학령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주거입지 특성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4호. 43-59.
- 조한선·이동민·김영춘(2013).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 지우석·오은정(2004). 맞벌이 가구의 통행특성 및 주거입지선택 분석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 최성수·주익현(2019). “시간은 돈이다?: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 통근시간의 계층화”. 한국인구학. 제42권 제1호. 1-31.
- 최열·유숙향(2005). “Mixed Logit Model 을 이용한 주거와 고용의 결합입지 선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0권 제1호. 35-46.
- 최준성·노승한(2021). “수도권 신도시의 통근비용을 고려한 주거비용 분석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29권. 93-116.
- 추상호·박성경(2013). “서울시 가구구조 유형별 공간적 분포 및 통행발생 요인 분석”. 교통연구. 제20권 제1호. 1-13.
- 통계청(2017).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 제약”. 2017.4.19. 보도자료.
- _____(2019a). 「인구총조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0>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2019b). 2019년 생활시간조사 지침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21). “유배우 가구현황(「지역별 고용조사(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F01S&conn_path=I3에서 2021.8.26. 인출.
- 하재현·이수기(2017). “개인의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통근시간 영향요인 분석: 2010 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2권 제4호. 135-152.
- 허수연(2008).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177-210.
- 허수연·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64호. 5-29.
- Anas, A., & Hiramatsu, T. (2012). The effect of the price of gasoline on the urban economy: From route choice to general equilibrium.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46(6), 855-873.
- Casper, L. M. & Bianchi, S. (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American Family*. Thousand Oaks, CA: Sage.
- Crane, R. (2007). Is there a quiet revolution in women's travel? Revisiting the gender gap in commut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3(3), 298-316.
- Dargay, J. M., & Clark, S. (2012). The determinants of long distance travel in Great Britai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46(3), 576-587.
- Gimenez-Nadal, J. I., & Molina, J. A. (2016). Commuting time and household responsibilities: Evidence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6(2), 332-359.
- Greene, W. H. (2003). *Econometrics*(5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Hilbrecht, M., Smale, B., & Mock, S. E. (2014). Highway to health? Commute time and well-being among Canadian adults. *World Leisure Journal*, 56(2), 151-163.
- Hu, L., & Schneider, R. J. (2017). Different ways to get to the same workplace: How does workplace location relate to commuting by different income groups?. *Transport policy*, 59, 106-115.
- Isacson, G., Karlström, A., & Swardh, J. E. (2013). The value of

- commuting time in an empirical on-the-job search model—an application based on moments from two samples. *Applied Economics*, 45(19), 2827-2837.
- Iseki, H., & Ali, R. (2014). *Net effects of gasoline price changes on transit ridership in US urban areas*. Mineta Transportation Institute.
- Jain, M., Korzhenevych, A., & Hecht, R. (2018). Determinants of commuting patterns in a rural-urban megaregion of India. *Transport Policy*, 68, 98-106.
- Lee, B. S., & McDonald, J. F. (2003). Determinants of commuting time and distance for Seoul residents: The impact of family status on the commuting of women. *Urban Studies*, 40(7), 1283-1302.
- Ma, X., Liu, C., Wen, H., Wang, Y., & Wu, Y. J. (2017). Understanding commuting patterns using transit smart card data.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58, 135-145.
- McQuaid, R. W., & Chen, T. (2012). Commuting times—The role of gender, children and part-time work.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34(1), 66-73.
- Nowak, W. P., & Savage, I. (2013). The cross elasticity between gasoline prices and transit use: Evidence from Chicago. *Transport policy*, 29, 38-45.
- OECD(2011). Commuting time: Minutes per day, persons in full-time employment. In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OECD Family Database(2016). Time spent traveling to and from work. https://www.oecd.org/els/family/LMF2_6_Time_spent_travelling_to_and_from_work.pdf에서 2021.10.9. 인출.
- Olsson, L. E., Gärling, T., Ettema, D., Friman, M., & Fujii, S. (2013). Happiness and satisfaction with work comm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1(1), 255-263.
- Singell, L. D., & Lillydahl, J. H. (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mute to work patterns of males and females in two-earner households. *Urban Studies*, 23(2), 119-129.
- Small, K. A. (2012). Valuation of travel time. *Economics of transpo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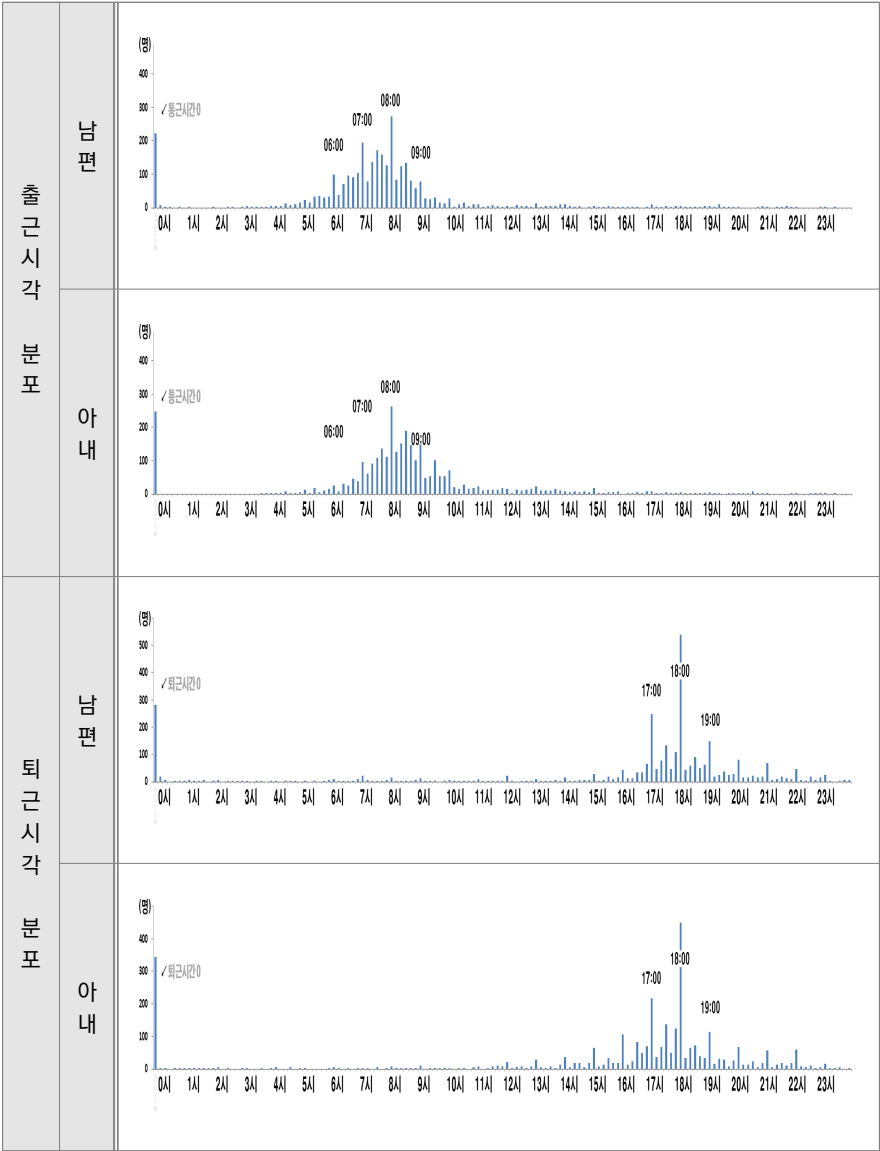
- 1(1-2), 2-14.
- Sorenson, O., & Dahl, M. S. (2016). Geography, joint choices, and the reproduction of gender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5), 900-920.
- Stutzer, A., & Frey, B. S. (2008). Stress that doesn't pay: The commuting paradox.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0(2), 339-366.
- Swärdh, J. E., & Algers, S. (2016). Willingness to accept commuting time within the household: stated preference evidence. *Transportation*, 43(2), 219-241.
- Tao, X., Fu, Z., & Comber, A. J. (2019). An analysis of modes of commuting in urban and rural areas. *Applied Spatial Analysis and Policy*, 12(4), 831-845.
- Turner, T., & Niemeier, D. (1997). Travel to work and household responsibility: new evidence. *Transportation*, 24(4), 397-419.
- Van Ommeren, J., & Fosgerau, M. (2009). Workers' marginal costs of commuting. *Journal of Urban Economics*, 65(1), 38-47.
- Wachs, M., Taylor, B. D., Levine, N., & Ong, P. (1993). The changing commute: A case-study of the jobs-housing relationship over time. *Urban Studies*, 30(10), 1711-1729.
- Wheatley, D. (2013). Location, vocation, location? Spatial entrapment among women in dual career households. *Gender, Work & Organization*, 20(6), 720-736.
- White, M. J. (1977). A model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and commuting by men and women worker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7(1), 41-52.
- Zolnik, E. J. (2011). The effects of sprawl on private-vehicle commuting distances and tim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38(6), 1071-1084.

[부록]

[부록 1] 남편과 아내의 특성별 평균 출근 및 퇴근시간

		출근시간(분)				퇴근시간(분)			
		남편		아내		남편		아내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교육 수준	초졸 이하	28.7	26.0	25.4	19.7	26.3	24.5	23.6	20.2
	중졸	28.7	19.7	29.4	21.9	30.9	24.5	30.0	23.0
	고졸	34.5	23.3	30.5	19.5	35.6	25.2	30.0	20.5
	전문대졸	35.7	22.0	30.1	20.1	36.5	25.3	30.7	23.1
	대졸 이상	38.4	26.6	30.4	22.8	37.8	28.2	29.7	22.8
소득 범주	100만원 미만	28.1	26.4	24.3	19.6	24.8	25.4	21.8	18.9
	100~200만원	29.0	21.7	29.9	19.0	32.2	25.4	29.5	19.8
	200~300만원	35.2	23.7	31.4	20.3	35.7	24.4	32.7	22.6
	300~400만원	39.3	25.6	33.7	24.1	38.2	27.4	33.7	27.5
	400~500만원	35.9	23.5	39.3	31.1	36.4	26.8	37.1	28.0
산업	500만원 이상	37.1	24.5	30.1	19.7	37.8	28.2	31.4	21.9
	관리자	35.0	21.3	35.6	27.9	37.9	25.1	35.9	30.8
	전문가	41.3	30.6	28.5	21.2	39.7	30.8	28.3	21.0
	사무 종사자	39.4	23.5	34.2	22.0	40.4	27.2	34.8	25.2
	서비스 종사자	29.1	21.9	27.1	17.9	26.7	22.2	26.4	17.5
	판매 종사자	33.6	21.3	30.8	20.6	35.4	24.5	30.7	23.1
	농림어업 종사자	17.5	15.7	15.3	15.6	17.2	16.7	13.0	13.2
	기능원	38.0	23.8	32.3	17.5	38.9	25.7	31.1	22.6
산업	장치, 기계조작	32.7	21.3	32.5	18.8	35.5	25.3	32.0	18.6
	단순노무 종사자	32.8	22.8	30.8	21.3	29.6	20.6	29.9	21.5
	농림어업 및 광업	18.6	15.4	21.3	22.1	18.4	16.8	18.9	20.1
	제조업	37.9	20.5	34.1	21.1	38.8	24.0	33.4	22.6
	전기·수도·건설업	43.0	26.7	30.2	22.7	45.0	29.1	29.2	27.6
	도매 및 소매업	33.2	20.2	28.4	19.4	34.3	23.4	29.4	22.1
	운수 및 창고업	29.4	20.9	33.3	22.7	31.9	26.1	25.2	16.8
	숙박 및 음식점업	30.9	21.0	26.6	16.2	28.3	19.6	25.1	15.9
	정보통신·금융업 등	42.5	30.1	36.1	25.2	40.6	29.7	35.9	25.4
	공공행정, 국방	30.0	21.3	27.8	15.3	29.0	22.4	27.8	18.9
	교육 서비스업	36.0	28.7	27.5	20.1	37.1	30.5	27.1	21.6
	보건·복지 서비스업	36.5	27.7	28.0	17.7	34.7	29.6	29.4	19.9
지역	기타 서비스업 등	29.0	20.2	32.1	24.4	29.2	21.7	29.2	22.7
	①서울	45.7	25.9	38.1	23.0	44.6	29.4	37.6	24.1
	②인천+경기	44.6	28.9	35.8	26.5	45.7	31.1	35.7	27.6
	③광역시(인천 제외)	33.2	22.1	30.4	17.5	34.8	23.3	30.0	19.5
미취학 가구원	④그 외	29.8	20.0	25.0	16.8	29.3	22.0	24.7	17.6
	있음	36.5	23.8	27.7	20.5	37.1	25.7	27.5	21.3
미취학 가구원	없음	35.4	24.4	30.6	20.8	35.7	26.5	30.3	22.0

[부록 2] 남편과 아내의 출근 및 퇴근 출발 시각 분포



Abstract

An Analysis of Commuting Time in Dual-Income Couples

Cheol Hwan Choi*·Ho-Joong Bae**

While dual income has been generalized so that nearly a half of the married couples (45.4%) were in dual income as of 2020,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commuting time in dual-income coupl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ommuting time in dual-income couples by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Time Use Survey(2019) and, on this basi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Judging that a spouse would significantly affect or be involved in a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time use, particularly, commuting time was analyzed,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a spouse as well.

The husbands had longer commuting time than the wives in the dual-income households; the husbands in higher-income categories had longer commuting time and income categorization made no difference for the wives. The presence of a preschool household member led to shorter commuting time for wives, indicating that the presence of a child who needs to be nurtured is likely to have a relatively stronger impact on economic activity of wives than on that of husbands. As for the income level of a spouse, the higher income category the spouse of husbands (i.e. wife) belonged to, the longer time they spent in commuting, whereas the more income the spouse of wives (i.e. husband) earned, the shorter time they generally spent in commuting.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possibility that using women's human capital could be socially inefficient was indicated and the need to make a policy for solving this problem was suggested. It was also emphasized that investigating commuting time essentially involved in work as well as the exposed labor market conditions, such as wage, employment type, and working time, could be of a great help in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Keywords : Dual-income couple, commuting, Time Use Survey

* First Author: KNU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Professo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